

해남군, 다산목민대상 행안부장관상...청렴 지자체 '우뚝'



해남군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직군수 3차례 연속 '부패 자치단체' 오명 벗어 전남서 3회 때 이후 9년만에 수상의 영광 '쾌거'

그동안 현직 군수가 3차례 연속 구속되면서 '부패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받았던 해남군이 이번 수상으로 청렴한 자치단체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올해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

여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서류심사와 비노출 현지실사, 심층면접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시·군·구별 각 1개의 지자체만을 선정한다. 이번 해남군의 수상으로 전남에서는 3회 때 이후 9년만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에 따른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상금 1000만원도 받았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부문에 서 해남군은 청렴한 행정과 부정 부패 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이던 청렴도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청렴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명현관 군수는 재임기간 무보수 선언으로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청렴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 공감대 속에서 공약을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수상 소감에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7만 해남군민과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고락을 함께하며 다산목민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산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10월 예정 통합의학박람회 취소... "코로나19 진정 안돼"

의료기관 중심인 참가단체 유치 어려움도 고려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10월15일부터 21일까지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장흥군은 박람회 개최까지는 시간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

지만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박람회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병의원, 대학교, 협회 등 참가단체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유치가 어려움이 있고, 최소 3개월 이상인 행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른 개최 여부 확정이 필요

한 점도 취소 결정의 큰 원인이 됐다. 정중순 군수는 "올해 박람회가 무산돼 아쉬움이 있지만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취소를 결정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탄탄한 준비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더욱 내실있게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초보귀농인 식물 번식법 교육

종자·영양번식 통한 식물 개체수 증식 방법 습득의 장 마련 강진군귀농인협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총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에 식물 번식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서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 강진군귀농인협의회 김옥환 회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능기부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초보귀농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10일 진행된 첫 교육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종자번식법에 대한 강의 진행됐다.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씨앗을 심어 재배하는 상추, 옥수수, 콩, 보리 등의 작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7일 진행된 두 번째 교육에서는 김 회장이 삼목 방법을 품소보여주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다음 진행할 수박, 접목 교육을 위한 묘목 생산을 위해 종자를 파종했다. 마지막 수업엔 선인장 접목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옥환 회장은 "많은 초보귀농인들이 종자가 받아하는데 필요한 햇빛, 양분, 온도와 옮겨 심는 계절 등 기본적인 식물의 번식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초보귀농인들이 비싼 묘목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 작물의 번식법을 배우면서 경영비 절감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 진실의 입 관광명소로 인기

지난 2018년 조성...관광객 인증 장소로 '부각'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앞 무형문화재전수관에 자리한 '진실의 입' 바위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8년 진도를 동회리 산기슭에서 발견된 바위가 로마의 대표 관광명소인 진실의 입과 비슷해 스토리 텔링을 통해 관광지로서 조성했다.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이설해 조성된 진도 진실의 입 바위는 SNS 인증 이벤트 등 2년여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로서 거듭났다. 진실의 입은 얼굴 형상을 한 40톤의 자연산 바위에 어든 손등까지 넣을 수 있는 큰 입을 가지고 있어

'로마의 진실의 입' 과 비교된다. 진도 진실의 입을 방문한 관광객 김모씨(부산광역시)는 "SNS에 올라온 진도문화관광 홍보용 웹 드라마와 인증 샷 등을 보고 방문했다"며 "TV로만 봤던 로마의 진실의 입이 궁금했는데, 진도에서 비슷한 진도의 입을 체험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든 상황에서 로마를 여행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진도 진실의 입을 홍보하는 등 색다른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진도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